

석사학위논문

손의 이미지를 통한 감정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18 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동양화와 진채화전공

이 수 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관식

손의 이미지를 통한 감정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motional Expression through
Image of a Hand

- Focused on own works -

2018 년 6 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동양화와 진채화전공

이 수 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강관식

손의 이미지를 통한 감정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Emotional Expression through
Image of a Hand

- Focused on own works -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6 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동양화와 진채화전공

이 수 임

이수임의 미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6 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 문 초 록

손의 이미지를 통한 감정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전공
이 수 임

본 논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본인의 작업을 중심으로 작업의 동기와 목적, 역사적 상징들을 연구한 작품론이다. 본인의 작업은 일상생활에서의 손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예술작품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작품들 중에서 인체를 사용해 표현된 작품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 중 본인은 인체의 한 부분인 손에 집중해 연구하였다.

철학자 칸트는 ‘손이란 밖으로 드러난 또 하나의 두뇌’라고 말했다. 손은 인체에서 뇌만큼 중요한 감각, 소통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손은 많은 것들을 말하기도 한다. 그 사람의 이력, 성격, 직업 등 많은 것을 표현한다.

본인은 먼저 손의 역할과 의미, 상징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인간의 손은 감각이 뛰어나 손가락 끝인 지문을 통해 울퉁불퉁한 점자책을 읽기도 한다. 손바닥에 있는 지문은 마찰력을 높여 미끄럼 없이 물건을 잡을 수 있게 한다. 손짓으로 의사소통도 가능하다. 손짓 언어인 수화는 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이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동양 회화와 서양 회화에 나타난 손의 상징에 대해 연구 하였

다. 수인은 불교에서 불 보살의 신불 맹세와 보살의 깨달음을 손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형상을 표현하는 불교만의 표현방식이다. 이처럼 수인은 몸의 일부분을 사용해 불상이나 불화의 성격과 내용을 상징하고 신앙심과 맹세의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불교에서 수인의 의미는 매우 크다.

서양회화에서 손을 주제로 자신의 작업 세계와 작가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준 여러 대작들이 있다. 미켈란젤로와 뒤러의 초상화를 보면 얼굴만큼이나 손이 강조 되어있다. 그들이 손을 쓰는 작가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손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현대회화 사진 작품에서도 여러 손을 찾아 볼 수 있다. 알프레드 스티클리치가 찍은 조지아 오키프의 손은 하나의 새로운 조형물처럼 손이 아름답게 보인다. 메리앨런마크가 찍은 테레사 수녀의 기도하는 손은 기독교에서 손의 상징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회화에는 인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작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본인은 일상생활에서 물감 묻은 손의 포착으로 작업을 시작하였고 최근 작품에는 손으로 여러 감정들을 표현하고자 한다. 그것은 자유를 갈망하는 손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다가가는 손이 될 수도 있다. 또 사랑을 갈구하는 손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회화에서 손이라는 주제는 동양과 서양에서 서로 다른 상징을 띄고 있다. 본 연구는 본인작품에서 손이 갖고 있는 감정과 의미뿐만 아니라 동양회화와 서양회화에서의 손의 감정과 역할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본인작업 안에서 손의 의미에 대해 더 심오하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작업에 긍정적인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주요어】 손, 감정, 상징, 의미, 역할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1
II. 손의 상징성	3
2.1 손의 형상	3
2.2 손의 역할	4
2.3 손의 상징	6
III. 동·서양 회화에서의 손의 역할과 의미	8
3.1 동양 회화에서 나타난 손의 역할과 의미	8
3.2 서양 회화에서 나타난 손의 역할과 의미	11
IV. 손 시리즈 작품분석	15
4.1 본인 작품에 나타난 우연적 표현 연구	15
4.2 본인 작품에 나타난 의도적 표현 연구	21
V. 결 론	28
참고문헌	30
ABSTRACT	31

그림 목 차

[그림 1] 『수인의 분류』	8
[그림 2]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 석굴』 , 높이 288cm , 통일신라	9
[그림 3] 신윤복 『연소답청』 , 종이에 채색, 28.2x35.6cm, 19세기	10
[그림 4] 얀 반 아이크,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 , 화판에 유화, 60x32.2cm, 1434년	11
[그림 5] 알브레히트 뒤러, 『기도하는 손』 , 종이에 브러쉬와 잉크, 29x20cm, 1508년	12
[그림 6] 도나텔로, 『막달라의마리아』 , 나무조각, 높이 188cm, 1455년	13
[그림 7] 오귀스트 로댕, 『대성당』 , 돌, 64x29.5x31.8cm, 1908년	14
[그림 8] 이수임, 『UNIVERSAL』 , 장지에 채색, 121x91cm, 2015년	17
[그림 9] 이수임, 『RED』 , 장지에 채색, 30x30cm, 2015년	18
[그림 10] 이수임, 『RED II』 , 장지에 채색, 30x30cm, 2015년	18
[그림 11] 이수임, 『VIOLET』 , 장지에 채색, 30x30cm, 2015년	18
[그림 12] 이수임, 『GREEN』 , 장지에 채색, 30x30cm, 2015년	18
[그림 13] 이수임, 『BLUE』 , 장지에 채색, 30x30cm, 2015년	19
[그림 14] 이수임, 『RAINBOW』 , 장지에 채색, 33x68cm, 2015년	19
[그림 15] 이수임, 『BLACK AND VIOLET』 , 장지에 채색, 50x50cm 2016년	22
[그림 16] 이수임, 『PINK』 , 장지에 채색, 60x30cm, 2016년	23
[그림 17] 이수임, 『BLACK AND BLUE』 , 장지에 채색, 60x60cm, 2016년	23

[그림 18] 이수임, 『늑대 그림자』, 장지에 채색, 60x60cm, 2018년	25
[그림 19] 이수임, 『토끼 그림자』, 장지에 채색, 30x30cm, 2018년	26
[그림 20] 이수임, 『BALL』, 사진, 26x20cm, 2010년	27
[그림 21] 이수임, 『FLOWER』, 사진, 16x10cm, 2010년	27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

현대사회에서 예술작품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작품들 중에서 인체를 사용해 표현된 작품들이 많이 보여 지고 있다. 인체는 인간의 감정이입이 가능한 가장 가까운 매개체로 회화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제이다. 그 중 본인은 인체의 한 부분인 손에 집중해 연구하였다. 본인은 본인이 제작한 ‘손’ 연작을 발전시키고자 동양 회화와 서양 회화에 나오는 손의 상징과 역할을 연구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손이 등장 하게 된 계기는 손이라는 인체의 한 부분이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 왔기 때문이다. 본인과 같은 대부분의 작가는 손으로 붓을 쥐고 손에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작가에게 손은 가장 중요한 인체 작업 수단이다. 손이 지닌 아름다움과 힘 그리고 정교한 구조는 오늘날까지 사진가들과 화가들의 관심을 받아오고 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치밀한 관찰과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다. 손의 모양, 동작, 표정은 얼굴의 표정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때로는 손은 얼굴보다 더 분명한 표현을 하며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한다.¹⁾ 작업 중 우연히 발견한 물감 묻은 손은 하나의 작품 같고 인상 깊어서 실제 페인팅 작품으로 표현 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은 손이라는 작업 주제가 회화에서 어떤 상징으로 표현 되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본인의 작품이 알맞은 주제를 갖고 있는지의 형평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문 II장에서는 손의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손의 형상과 일상생활에서의 역할, 일반적 상징과 여러 가지 예시를 알아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동양회화사, 서양회화사에서 손의 역할과 손을 주제로 한 작품들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한다. 나아가 손이 작품 소재로서 어떻게 활용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본인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나타내고자 했던 감정

1) 새러 심블릿. (2005). 『예술가를 위한 해부학』. 서울: 예경, p.230.

과 상징성을 분석하고, 그것을 재해석하며 작품으로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손의 상징성

2.1 손의 형상

인간의 손에는 무언가 시적인 것이 있다. 손의 형태와 기능은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뇌의 일부’라 할 만하다. 엄청나게 섬세한 손은 밀가루를 반죽해 빵을 만들 수 있으며, 심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야구공을 던지고 스웨터를 찢 수 있으며, 피아노를 연주하고 상처를 봉합할 수도 있다. 우리의 손은 목탄 조각을 쥐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역사를 기록하고 고층 건물의 모형은 물론 고층 건물 자체를 만들 수 있다.²⁾

신체에서 가장 섬세한 부분인 손에 의해, 복합적으로 조직화된 움직임이 발생한다. 손은 조그마한 관절, 뼈, 서로 연결망을 이루고 있는 힘줄, 독특한 말단과 기능(일부 감각 기능, 일부는 운동 기능)을 지닌 다양한 신경, 아주 작은 동맥, 정맥, 피부, 근육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다.³⁾

손은 수많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도구이다. 촉각 기관인 손은 온 몸의 신경이 모두 모여 있는 부위로 매우 예민하다. 손은 손가락, 손목, 손바닥까지 모두 27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몸에 있는 206개의 뼈 중에 26%가 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섯 손가락 마디마다 관절이 있어 그 어떤 신체기관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체 부위 중 손이 가장 부지런하다는 뜻이다.⁴⁾

2) E.F.쇼 월기스. (2015). 『손의 비밀』. 서울: 정한책방, p.32.

3) E.F.쇼 월기스, 위역책, p.34.

4) 이노미. (2009). 『손짓, 그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 서울: 바이북스, p.19.

2.2 손의 역할

사람이 물건을 쥘 때 사용하는 신체 부위는 바로 손이라는 점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사람의 물욕, 소유욕 등을 물리적으로 실현시키는 신체도구가 바로 손이기 때문이다. 척추동물 중에 고등동물⁵⁾ 등에게도 앞다리, 뒷다리가 있다. 하지만 이런 동물들은 ‘앞발’이나 ‘앞다리’라고 하지 ‘손’이나 ‘팔’ 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긴팔원숭이’라는 이름에서 보듯, 일부 영장류에 한해서는 손이나 팔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엄지손가락이 다른 네 손가락과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손 근육이 극히 발달한 동물은 오직 사람뿐이다. 침팬지 정도가 엄지와 검지가 닿을락 말락 해 물건을 겨우 쥐는 정도다.⁶⁾

사람은 말을 하거나 말로써 의사전달을 할 때 손을 이용해 제스처를 취하기도 한다. 제스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암묵적인 말과 행동을 인식하고 그들에 대해 알게 해주는 소중한 보조수단이다. 제스처는 의사소통에서 상징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에도 여러 영역에 걸쳐 비언어적인 전달 수단이 된다. 제스처는 어디서나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이 되어왔다. 제스처는 그 자체가 의사소통이 된다.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려진 천지창조 천장화에 뻗은 손가락은 하나의 제스처로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다.⁷⁾

엄지를 치켜세우는 것은 자신감과 의욕 또는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제스처다.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최고’라는 것을 나타낼 때도 엄지를 올리는 동작을 사용한다. 이와 반대로 엄지를 아래로 향하게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여겨진다. 로마 시대에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전투 후 패배를 알릴 때 이 제스처를 사용하였다.⁸⁾

종교적인 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정신작용만은 아니다 ‘신체자세는 언어이다’라는 앙리 카파렐의 말처럼 신체가 가만히 머물러 있기만 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손을 합장하는 자세는 찬양이나 마음이

5) 체제적·기능적으로 우수한 동물의 총칭인데,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무척추 동물에 대해 척추동물을 가리키지만, 척추동물 내에서도 조류나 포유류를 지칭하기도 한다.

6) 이노미, 앞의 책, p.20.

7) 조르주장. (1997). 『기호의 언어』. 서울: 시공사, pp.158-159.

8) 이경기. (2010). 『제스처는 진실을 말한다』. 파주: 김앤정커뮤니케이션, p.25.

한결같음을 나타내며, 손가락을 교차 시킨 것은 명상과 집중을 의미하기도 한다.⁹⁾

손짓언어는 인간이 표출할 수 있는 모든 의미를 포괄한다. 인사, 예절, 감정표현, 평가, 숫자, 성과, 반응, 지시, 호출, 모욕, 욕설, 위협, 상태, 외설, 상황, 숫자 기호 등의 의미가 유형별로 매우 광범위하게 짜여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조직화 하는 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 혼돈의 바다를 헤엄쳐 나가는 일만큼 어렵다. 이는 동작 기호로서의 손짓언어가 갖는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이다. 따라서 손짓 언어의 의미별 분류는 학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 가장 일반적인 부분은 정보 제공 동작이다. 정보제공 동작은 발신자의 의견에 대한 수신자의 거절이나 승낙의 입장을 밝히는 동작이다. 요구 및 청유 동작은 명령과 위협, 경고, 부탁, 주의 환기, 금지, 반문, 부름 행위를 나타낸다. 또한 발신자의 감정와 인지, 사회적 접촉과 관련한 감정 표현 동작은 저주와 조롱, 인사와 감사, 환영의 행위를 포함한다. 평가 동작은 우수함이나 경멸, 모욕을 나타내는 손동작이며, 지시 동작은 특정 인물을 부를 때나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자 할 때, 택시를 부를 때의 동작을 일컫는다.¹⁰⁾

절도 있는 손짓은 말의 효과를 높인다. 아무 동작 없는 말은 빈약하고 지루하다. 손짓을 쓰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표정까지 억누르고 있는, 언제 봐도 무표정한 얼굴은 진저리난다. 반면에 풍차 날개마냥 휘둘러대는 손과 팔은 산만하고 짜증스럽다.¹¹⁾ 적절한 손짓은 청산유수 같은 언변에 효과를 높여준다.

9) 조르주장. (1997). 『기호의 언어』. 서울: 시공사, p.159.

10) 이노미. (2009). 『손짓, 그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 서울: 바이북스, p.132.

11) 존 네이퍼어. (1999). 『손의 신비』. 서울: 지호, p.199.

2.3 손의 상징

손은 인간의 삶과 떼어놓을 수 없기에 전통적으로 사람의 인생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해석해 왔다. 우리는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건강, 운명, 직업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손금을 마치 운명의 지도인 것처럼 여긴다. 손안쪽에 있는 지문도 비슷하다. 지문은 사람마다 무늬가 다르고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나 범죄 수사에서 사람을 식별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곧 지문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마찬가지로인 셈이다. 또 손을 보고 사람의 직업을 짐작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가녀리고 연약한 손에 비해 거칠고 둔탁한 손은 고된 노동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본다. 피아노 연주자의 손은 길고, 마술사 또한 유난히 기다란 새끼손가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굳은살 박인 손에는 인생의 연륜이 새겨져 있기도 하다.¹²⁾

손을 움직이게 하는 다섯 손가락은 이름이 다른 만큼 기능이 제각각이다. 첫째 손가락인 엄지는 다섯손가락 중 가장 굵고 힘이 강해 권력을 상징한다. 둘째손가락인 검지는 집게손가락(index finger) 으로 불리는데, 해부학에서 부르는 라틴어 명칭 ‘데몬스트라토리우스(demonstratorius)’가 ‘가리키다’의 뜻인데 무언가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다섯 손가락 중 길이가 가장 긴 가운데손가락 중지(中指)는 능력을 나타낸다. 넷째 손가락인 약손가락은 약을 저을 때 사용되어 병을 고치는 효험으로 인해 약지(藥指)로 일컬어지며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뜻하기도 한다. 결혼반지를 약지손가락에 끼는 것은 사랑하는 이와 영원함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은 귀를 후빌 때 쓰기 좋은 알맞은 정도로 작다는 의미에서 ‘귀손가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소지(小指)라고도 불린다. 다섯 손가락 중 가장 여리고 가늘어서 사랑스럽고 연약한 상징으로 여겨진다.¹³⁾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상징과 역할을 하는 손을 지독하게 푸대접한다. 카메라나 TV, 스마트폰을 조작할 때면 손에 의존한다는 사실조차 까마득히 잊은 채. 이점에서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로, 손을 혹사시키는 데에는 남자들이 특히 더 심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손이 두터운 피부와 단단한 굳은살

12) 이노미, (2009). 『손짓, 그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 서울: 바이북스, p.20.

13) 이노미, 위의책, p.22.

손목 부위 피부와 손바닥의 거친 섬유 조직층으로 이런 험한 취급에 적응되어 왔다는 점이다.¹⁴⁾

사람의 손은 운동신경 활동의 주요 매개일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감각인 촉각의 주요 기관이다. 손은 눈과 더불어 우리가 물리적 환경과 접촉하는 주요 기관이다.¹⁵⁾

14) 존 네이퍼어. (1999). 『손의 신비』. 서울: 지호, p.19.

15) 존 네이퍼어, 위의 책, p.19.

Ⅲ. 동·서양 회화에서의 손의 역할과 의미

3.1 동양회화에서 나타난 손의 역할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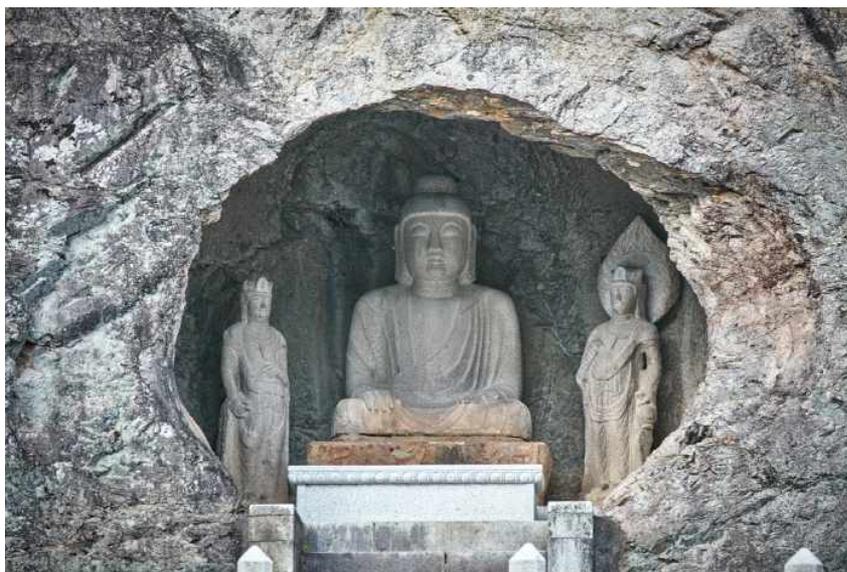
불화에 나오는 부처님들의 손은 다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수인이라고 한다. 불, 보살의 신불 맹세를 표현한 손 모양을 ‘수인’ 이라고 한다. 부처의 손 모양으로 인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표시한 것이다. 여래나 보살의 깨달음, 소원의 맹세 등을 손과 손가락의 모양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수인은 고대 인도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불상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었다. 수인 가운데 시무외인은 부처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 주기 위해 나타내는 형상이다.



[그림 1] 『수인의 분류』

팔을 들고 다섯 손가락을 밖으로 향해 어깨높이 까지 올린모양이다. 여원인은 모든 중생의 소원을 만족시킴을 나타내는 형상이다. 시무외인과는 반대

로 왼손의 다섯 손가락을 펴서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게 하는 모양이다. 전법륜인은 부처가 설법 교화함을 보이는 손가락 모습이다. 양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려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댄 후 왼손은 손바닥 위로 해 퍼진 마지막 두 손가락 끝을 오른쪽 손목에 대고, 오른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향한 형태이다. 항마촉지인은 악마를 항복하게 하는 형상으로 왼손은 무릎위에 두고 오른손을 내려 땅을 향하는 모양이다. 선정인은 부처가 번뇌가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통일된 상태에 들었을 때 했던 손 모양이다. 두 손을 펴서 왼손을 아래로 해 겹치고 두 엄지손가락의 끝을 서로 맞댄 형태이다. 이러한 수인에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불상을 만들 때 함부로 형태를 바꾸거나 특정 부처의 수인을 다른 부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¹⁶⁾



[그림 2]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 석굴』, 높이 288cm, 통일신라

〈군위 아미타여래 삼존 석굴〉에는 700년경에 만들어진 삼존 석굴이 있다. 얼굴을 보면 삼국 시대 불상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친근한 미소가 없다. 위엄 있는 표정을 하고 있다. 가운데 석불의 불상 손모양을 보면 무릎 아래로 늘어뜨린 오른손은 손가락이 땅을 가리키고 있고 왼손은 손바닥이 위로 향하고 있다. 이는 석가모니가 수행을 방해하는 악마를 항복하게 만든 손 모양이

16) 심영욱. (2015). 『한국미술사를 보다』. 서울: (주)리베르스쿨, p.219.

다.17) 즉 수인에서 향마촉지인의 손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신윤복 『연소담청』, 종이에 채색, 28.2x35.6cm, 19세기

조선후기 신윤복의 그림 ‘연소담청’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았다. 제목은 ‘젊은이가 푸르름을 밟다’ 라는 뜻이다. 젊은 청년들이 기생들과 꽃놀이하는 모습을 그렸다. 향낭까지 달고 치장한 멋쟁이 모습이 눈에 띈다. 자신의 말에 기생을 태우고 스스로 마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¹⁸⁾

본인이 <연소담청>을 감상한 시점은 기생들의 손짓이다. 노란저고리를 입은 기생의 손짓은 그녀를 더욱 기생처럼 보이게 한다. 이처럼 손이나 손동작은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 우아한 손짓으로 한눈에 기생과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버릇처럼 몸에 배어있는 제스처, 손동작만으로도 당시 사회 문화가 어땠는지 알 수 있고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17) 심영옥, 앞의 책, p.175.

18) 심영옥, 위의 책, p.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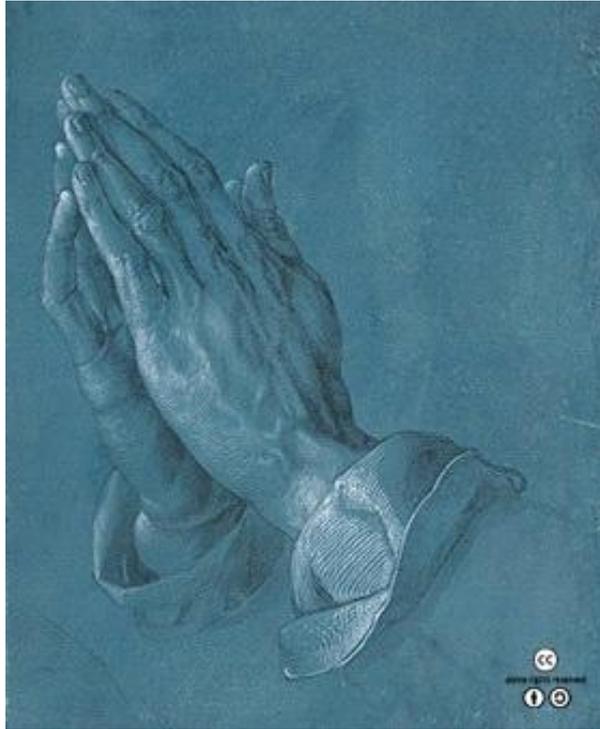
3.1 서양회화에서 나타난 손의 역할과 의미



[그림 4] 얀 반 아이크,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 화판에 유화,
60x32.2cm, 1434년

얀 반 아이크의 그림은 서양미술사에서 여러 가지 상징이 들어간 제일 독창적이고 복합적인 그림으로 평가 받는다. 반 아이크가 그린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 장면에서 결혼이라는 상징은 전적으로 손에 있다. 특히 오른손에서 찾을 수 있다. 기독교사회에서 손의 상징은 아주 강력한 것 이어서 청혼자가 미래의 신부에 청혼하는 것을 ‘손을 요구 한다’라고 표현하며 청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손을 건넨다’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결혼의 다른 상징인 결혼반지를 끼는 곳도 또한 손이다. 반 아이크의 그림에서 신랑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데 신부는 지그시 눈을 내리깔고 있다. 여성의 복종을 의미하는 전통사회의 상징이 아닐까¹⁹⁾

19) 조르주 장. (1997). 『기호의 언어』. 서울: 시공사, p.109.



[그림 5] 알브레히트 뒤러, 『기도하는 손』, 종이에 브러쉬와 잉크,
29x20cm, 1508년

알브레히트 뒤러와 그의 동생은 청년 시절 각각 미술과 피아노에 뜻이 있었으나 형제는 가난으로 인해 뜻을 펼치기 힘들었다. 동생은 먼저 돈을 벌어 학비를 대주고 형이 그림을 배워 성공하면 동생의 학비를 대줄 계획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뒤러는 성공한 화가가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와 동생을 만났다. 동생의 손은 노동으로 인해 피아노를 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형은 동생의 기도를 듣게 된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져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형만은 화가로서 성공하게 해주옵소서!” 뒤러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다. 감동의 눈물을 흘린 뒤러는 그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다. 뒤러는 말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요.” 이 손은 동생의 손일 수도 있지만, 동생의 손을 생각하면서 그린 뒤러 자신의 손일 수도 있다. 또한 이 손은 두 남자의 오른손과 왼손을 모

은 것이라는 설도 있다. 아름다운 마음을 그린 것임에 틀림없다. 뒤러의 한 손은 영원히 동생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손으로 쓰겠다는 다짐 같기도 하다. 이 손은 지금도 교회나 기독교인들 가정뿐 아니라 인간을 위해 기도해주는 상징적인 손이 된 것이다.²⁰⁾



[그림 6] 도나텔로, 『막달라의마리아』, 나무조각, 높이 188cm, 1455년

〈막달라의마리아〉는 야원 얼굴, 각진 팔 다리, 마른 통나무 같은 몸에선 관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갈기갈기 찢어진 옷과 머리카락이 하나로 연결되어 구분되지 않는다. 머리카락이든 몸이든 옷이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의 표현을 위해 속죄라는 종교적 의식을 위해 조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리아의 빈약한 몸을 덮고 있는 천 조각이 힘든 정신상태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마리아는 두손을 모아 빌고 있다.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비는 모습은 하늘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반성하는 손을 의미한다.²¹⁾ 누더기 옷을 입고 손을 합장하는 모습이 뭔가 더욱 안타까워 보이는 작품이다.

20) 노르베르트 볼프, (2008). 『알브레히트 뒤러』, 서울:마로니에북스, p.78.

21) 최영미, (2002). 『화가의 우연한 시선』, 경기도:돌베개, p.34.



[그림 7] 오귀스트 로댕, 『대성당』, 돌, 64x29.5x31.8cm, 1908년

로댕은 특별히 손의 형상에 집착했다. 로댕에게 표정은 얼굴만이 아니라 피부전체, 살 깊숙이 자리했다. 또한 손도 개성을 나타냈다. 부드러운 손바닥, 구부린 손가락 관절, 손동작 등에서 두드러져 보인다. 로댕이 활력을 불어넣은 손은 주인의 인성을 나타내 보인다. 로댕은 신체의 끝까지 에너지를 집어넣어 인체 각각의 부분이 표현적이고 예술적인 가치에 있어 동등하게 존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치를 이루는 두 손은 진지하고 평온한 <대성당> 손 자체를 기념지와 같은 위상으로 높인 그 예인 작품이다.²²⁾

22) 베르나르 샹피넬르. (2003). 『로댕』. 서울:(주)시공사, p.236.

IV 손 시리즈 작품분석

4.1 본인작품에 나타난 우연적 표현 연구

평범한 일상에서 관찰해보면 손은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 신체의 한 부분인 손을 이용하고 친구들과 내기 게임을 할 땐 손을 이용한 가위, 바위, 보를 한다. 또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청각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에게는 손짓언어 수화가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손짓이 그들에게겐 목소리가 된다. 그들의 손은 목소리를 대신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니라는 말을 할 때 “아니” 라고 소리 내어 말하기도 하지만 손을 양쪽으로 저으면 아니라는 의사표현을 한다. 지금 이 글을 적고 있는 본인도 손을 사용해 적고 있다.

어려서부터 유난히 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들보다 작고 가는 손은 항상 본인 스스로에게 눈이 갔다. 더 나아가 대학생이 된 후로는 매니큐어 바르는 취미와 항상 반지를 두 세개씩 끼고 다니기도 했다. 본인의 작업에 손이 주제가 된 계기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차원적이고 추상적인 생각이 부족한 본인에게 몸과 손, 발 같은 인체 작품의 주제로 적합했다.

예나 지금이나 작품 속에서도 손이라는 주제는 많이 등장한다. 불화의 수인, 로댕의 손, 미켈란젤로, 뒤러의 기도하는 손 등등 여러 가지 대작들이 많이 있다.

본인처럼 대부분의 작가는 손으로 붓을 쥐고 손에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인체 작업 수단이다. 그런 본인의 인체를 기록으로 담고 싶어 손이라는 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작업 중 우연히 발견한 물감 묻은 손은 하나의 작품 같고 인상 깊어서 실제 페인팅 작품으로 표현 하게 되었다.

그림에서의 주제를 정할때는 평소 본인이 관심 있던 주제를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연한 일상에서 정해지기도 한다.

진흙탕이나 빗속에서 철벽거리거나 장난치면서 원초적 충동과 감각이 마음껏 펼쳐지도록 내버려두어라. 이게 바로 현대무용단 필로볼러스 현대무용단에게 발생한 일이다. 그들은 푹푹 찌는 연습장에서 몇 시간 동안 새 무용작

품을 창작하려고 애썼지만 잘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날씨가 돌변했다. 비가 왔다가 다시 해가 나타나면서 몸과 마음이 풀어졌다. 무용수들은 안무작업을 잠시 멈추고 즐기기 시작했다. 그중 한 단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밖으로 달려 나가서 “진흙탕 속을 철벽거리며 걷기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 구르고 뛰었다.” 라고 전한다. 그들은 태양과 진흙과 비와 천둥의 동작 이미지를 가지고 놀았다. 그들은 그런 새로운 경험에 영감을 받아 새로운 안무를 창작하였다. 그 다음 그들은 단 몇시간에 걸쳐 새로운 안무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데이 투’라는 대표작이 탄생하게된 것이다.²³⁾ 이처럼 창작 작품은 우연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한다.

23)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2007). 『생각의 탄생』. 서울:에코의 서재, p.347



[그림 8] 이수임, 『UNIVERSAL』, 장지에 채색, 121x91cm, 2015년

그림8 <UNIVERSAL>의 작품은 추상화의 대가 잭슨폴록 Jason pollock이 떠오르는 작품이다.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화가 ‘잭슨폴록’은 캔버스 위에 물감을 끼얹고 흩뿌리며 우연한 효과를 나타내는 작업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의 이미지는 새롭고 좀 더 특별한 형상을 띄고 있다. 흩뿌리기 기법으로 자유롭게 표현했으며 의도치 않은 ‘우연함’을 작품으로 만들어 냈다. 의도치 않은 우연함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듯 우연적 발견으로 작품을 발전시켰다.

본인은 우연히 흩뿌려진 손에 묻은 물감들이 아름다워 ‘UNIVERSAL’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유년시절 우리들은 미술시간에 우연효과 기법들을 접한다. 물감 불기 기법, 데칼코마니 기법, 마블링 등 우연효과 기법들은 새로운 이미지를 창조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림 9] 이수임, 『RED』 ,
장지에 채색, 30x30cm, 2015년



[그림 10] 이수임, 『RED II』 ,
장지에 채색, 30x30cm, 2015년



[그림 11] 이수임, 『VIOLET』 ,
장지에 채색, 30x30cm, 2015년



[그림 12] 이수임, 『GREEN』 ,
장지에 채색, 30x30cm, 2015년



[그림 13] 이수임, 『BLUE』, 장지에 채색, 30x30cm, 2015년



[그림 14] 이수임, 『RAINBOW』, 장지에 채색, 33x68cm, 2015년

초기 작업 물감 묻은 손은 모두 본인의 손이다.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 보면 손에 우연하게 물감이 묻는다. 그림에도 그림을 그린 흔적이 남지만 손에도 그 흔적이 남는 것이다. 이처럼 손에 묻은 물감이 의미 있다고 느꼈다. 물감으로 인해 더러워진 손을 최대한 미화 시켜 표현 하였다. 손에 물감을 덕지덕지 발라 본연의 손의 색을 감추기도 했다. 기법도 종이에 물감을 덕지덕지 발라 표현하였다. 종이가 손이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 색의 물감이 손에 묻는다. 특별히 한가지의 색이 묻는 경우는 드물다. 본인은 물감 묻은 손을 강조하고자 단색으로 물감 묻은손을 표현하였다. 손목을 자른 구도를 사용해 좀 더 극대화, 우연한 감정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붉은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등등의 색으로 표현된 부분의 본인의 유치한 성향을 띄고 있다. 어른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고 유치한 것과 아이들, 동물들을 좋아하는 본인의 성향이 잘 나타나는 그림이라고 본다.

4.2 본인작품에 나타난 의도적 표현 연구

현대사회에 들어서 대기업, 브랜드들은 마케팅 전략을 이용한다. 브랜드의 고유한 이미지를 정해놔야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홍보가 되기 마련이다. 브랜드나 대기업의 컨셉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의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이 역지 컨셉이 될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중요한 작업이다. 본인도 작품으로 이야기 하고자 손이라는 주제와 여러 도구를 이용해 작업을 하였다. 전쟁을 앞둔 군사들은 모형으로 가상전투를 시뮬레이션 한다. 실제 상황을 앞두고 군사들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 작전 가능한 전투 계획을 예상해보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전략방법인 셈이다. 의도적인 손의 모습을 통해 손에 대해 더 연구하였고 작품으로 연결시켜 보았다. 모든 사람들의 손은 다 다르게 생기고 저마다 다 개성이 있기도 하다. 우리들의 두 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우리는 손을 통해 사물을 느끼고, 제스처와 손짓을 이용해 말하기도 한다. 손은 뇌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의 대부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도구이며, 이로 인해 인류 역사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²⁴⁾ 우리들은 손을 뻗어 움켜쥐고, 힘을 주어 쥐고, 잡아당겨 가면서, 보다 친절하고 안전하며, 좀 더 계몽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인간이라는 종이 시작된 아래로 우리가 이루는 진보는 손이 지닌 경이로운 능력과 불가분한 관련을 맺고 있다.²⁵⁾ 오귀스트 로댕의 대성당 작품처럼 이손은 무엇을 잡으려는 걸까? 무엇을 만지려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드는 손을 무채색으로 표현해 아련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손은 생각보다 많이 섬세하고 손가락 하나하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다. 감성적인 동작을 이용해 약간은 쓸쓸한 이미지 또는 쟁취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나타내 보았다. 어렸을 적 해보았던 그림자놀이를 더 구체화 시켜 작품으로 발전시켰다.

24) E. F. 쇼월기스. (2015). 『손의 비밀』. 서울: 정한책방, p.9.

25) 쇼월기스, 위의책, p.10.



[그림 15] 이수인, 『BLACK AND VIOLET』, 장지에 채색, 50x50cm 2016년

요즘 사진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여행에서 카메라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해 사진을 찍는다. 자연스러운척 의도적으로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기도 한다. 또 화보나 사진집을 보면 컨셉을 잡고 찍는 사진들이 많이 있다. 본인은 의도적으로 분위기 있는 듯한 느낌의 손 모양을 담았다. 의도적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손 모양을 함으로써 하나의 이미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피아노를 치는 손의 형상이 떠오를 수 있고, 무언가에 손을 갖다 대는 형상이 떠오를 수 있다. 누군가의 하이파이브 하는 형상이 될 수도 있다. 작품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배경을 비워두었다. 작품 속에 열린 이야기를 담기 위함이다.



[그림 16] 이수임, 『PINK』 , 장지에 채색, 60x30cm, 2016년



[그림 17] 이수임, 『BLACK AND BLUE,』 , 장지에 채색, 60x60cm, 2016년

이번 작품을 보면 이전 작품과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사실적으로 표현하던 작업 방식에서 좀 더 힘을 풀고 편안하게 그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와 닮게 그려야 한다는 강박과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형태를 신경 쓰지 않고 전체적인 동작과 느낌에 더 신경을 썼다. 형태와 묘사에 신경을 쓰다보면 그것이 어긋날 때 작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작업진행에 질린다거나 작품을 끝내기 힘든 점이 나타난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그런 부담을 덜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형태와 묘사가 어긋나더라도 이야기의 취지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2016년 작업 손 연작에서는 양손이 모두 등장 한다. 뻗고 있는 손은 어디 목적지를 향해 뻗는 손은 아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손을 표현 한 것 같지만 어떤 한 동작을 하려는 과정의 순간을 포착해 표현 하였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 손 일수도 있고 무엇을 가져가려는 손 일수도 있다. 초반에서 작업처럼 섬세한 묘사는 배제하고 오로지 손 동작에 집중하였다. 손으로 감정을 나타내고 싶었다. 손의 표정은 비시각적인 감정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감정을 가지고 있다. 감정은 심리상태 또는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알리는 중요한 표현 도구이다.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손의 형상에는 이런 중요한 표현수단인 감정을 갖고 있다. 감정에 충실하고자 흑백위주로 표현하였다. 여러번 겹쳐진 붓 터치는 쌓이고 쌓이는 중첩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그림 18] 이수임, 『늑대 그림자』, 장지에 채색, 60x60cm, 2018년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전래동화나 동화책을 필수로 읽어준다. 밤마다 머리맡에 있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추억이다. 본인은 엄마와 함께 밤에 방문사이로 들어온 빛에 그림자놀이 하던 기억이 있다. 어렸을 때는 손으로 만든 동물 모양들이 정말 신기했다. 손바닥이 나비 모양이 되고, 비둘기 모양이 되고, 토끼, 늑대, 강아지 등등 여러 동물들의 그림자로 변하는게 정말 신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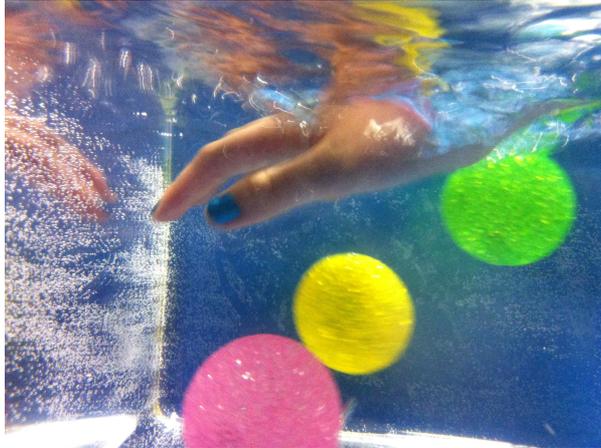
아무런 재료 없이 빛과 비칠 장소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놀이로 생각을 풍부하게 하고, 알게 모르게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준다. 두꺼운 종이의 그림이나 인형에 그림자를 비춰서 연출하는 '종이그림자놀이'가 있기도 하다



[그림 19] 이수임, 『토끼 그림자』, 장지에 채색, 30x30cm, 2018년

그림자 시리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손 그림자놀이를 표현한 작업이다. 밤에 자기 전 밖에서 비추는 빛으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를 이용해 강아지 토끼 나비 등등 그림자를 만들어 놀았던 추억들이 하나씩 있다. 의도적으로 만든 그림자놀이는 아이들의 순수한 느낌이 든다.

그림자놀이는 어린이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어 나간다. 인형과 장난감, 책 같은 물질적 도움 없이 오직 몸에 붙어 있는 인체의 손과 그림자만으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다는게 참 매력적이고 맹인들의 수화만큼 큰 매력적인 예시이다.



[그림 20] 이수임, 『BALL』 , 사진, 26x20cm, 2010년



[그림 21] 이수임, 『FLOWER』 , 사진, 16x10cm, 2010년

사진 작업을 할 때도 손은 어김없이 본인의 주제가 되었고 작업의 주인공이 되었다. 한쪽 손은 수중에서 나머지 한쪽 손은 사진을 찍고 작업을 반복하였다. 흔히 공을 생각했을 때 놀이 또는 즐거움이 떠오른다. 색색의 공을 이용해 즐거움을 쫓으려는, 즐겁게 놀고 있는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했다. 의도적으로 손을 연출하였다. 물속에 손을 집어넣어 꽃은 향해 뻗고 있는 이미지다.

‘꽃’은 회화작품에 꼭 하나쯤은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다.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이기에 쉽게 주제로 선정된다. 자연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꽃’과 자화상 얼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손’을 한 화면에 배치하였다. 정말 말 그대로 꽃을 쫓으려는 손이 될 수도 있다.

V. 결 론

본 논문은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본인이 제작한 ‘손’연작을 중심으로 작업의 목적과 동기, 동서양의 역사적 배경과 기본적 배경 등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예술 작품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본인의 이야기를 다루기도 한다. 작품에서의 작품 주제가 이야기 하는 내용과 숨은 뜻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동서양 회화에서 인체란 흥미로운 주제로 사용 되어왔다. 그중에서 손을 중점으로 표현방식, 감정표현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인 작품 뿐 아니라 서양 회화와 동양회화에서 손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는 광범위하고 무궁무진하다. 멀리 봤을 때 그냥 손인 것 같지만 각자 자신마다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숨은 뜻은 다르다. 현대인의 삶을 반영하고 일상의 순간과 감정 표현을 하는 매체로 ‘손’을 주목하였다. 손은 감정이나 욕구를 표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발견되는 감정을 상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객관적인 손의 상징성, 손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동양회화에서는 가장 상징적인 ‘수인’에 대해 다루었다. 부처의 손 모양으로 인간에 대한 분명한 야속, 진리, 깨달음을 나타내었다. 조선후기 신윤복의 ‘연소답청’에서 기생의 손에 집중해 손 제스처가 사람의 이미지나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양회화에는 특히 많은 손이 등장했다. 얀 반 아이크의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 알브레히트 뒤러의 ‘기도하는 손’ 텔론테 자코피노의 ‘미켈란젤로의 초상’ 로댕의 ‘대성당’ 등 서양회화에서 ‘손’이라는 주제가 작가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손’에 대한 감정이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본인 작품의 우연적 표현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발견된 물감을 주제로 우연히 발견한 작품에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았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우연한 발견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잭슨폴록과 같은 기

법을 사용해 ‘손’이라는 주제를 좀 더 매력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우연히 물감 묻은 손을 기록해 ‘흔적’이라는 감정을 본인만의 상징성으로 제시하였다.

현대사회에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 이미지화 시키는 광고를 예를 들어 접근하였다.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듯한 손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렸을 적 그림자놀이를 표현한 작품에서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인체의 손, 그림자만으로 놀 수 있는 손의 매력과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꽃을 쫓으려는 손을 표현해 아름다움에 다가가고 싶은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예술 활동은 본인의 감정을 나타내는 일이다. 수많은 작가들은 캔버스에 본인만의 이야기를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 캔버스 안에는 사회적 문제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본인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동·서양의 손이라는 주제가 주는 감정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본인의 작품을 좀 더 깊이 분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토대로 나아가 본인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앞으로의 작업의 깊이가 확장될 것이라 믿는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새러 심블릿. (2005). 『예술가를 위한 해부학』. 서울: 예경.
- E.F.쇼 일기스. (2015). 『손의 비밀』. 서울: 정한책방.
- 이노미. (2009). 『손짓, 그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 서울: 바이박스.
- 조르주 장. (1997). 『기호의 언어』. 서울: 시공사.
- 이경기. (2010). 『제스처는 진실을 말한다』. 파주: 김앤정커뮤니케이션.
- 존 네이피어. (1999). 『손의신비』. 서울: 지호.
- 심영욱. (2015). 『한국미술사를 보다』. 서울: (주)리베르스쿨.
- 노르베르트 볼프. (2008). 『알브레히트 뒤러』. 서울: 마로니에북스.
- 최영미. (2002). 『화가의 우연한 시선』. 경기도: 돌베개.
- 베르나르 샹피뇰르. (2003). 『로댕』. 서울: (주)시공사.
-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2007). 『생각의 탄생』. 서울: 에코의서재.

ABSTRACT

A Study on Emotional Expression through Image of a Hand – Focused on own works –

Lee, Soo-im

Major in Oriental Painting and

True Colored Painting

Dept. of paint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paper is a theory of work studying the motivation, the purpose and the historical symbols of works of the writer from 2014 to 2018. My works started from the study on hands in everyday life.

Art works in modern society deal with many social issues. Among the works representing these social issues, there are many works using human body as the subject of the works. Among them, I concentrated on hands, a part of the human body.

Kant, a philosopher, said, "The hand is another brain revealed to the outside." The hand plays many important roles in the human body such as feeling sensations and communicating with others. It is actually as important as brain. The hand also speaks a lot of things. It shows the

history, personality, occupation of the person.

I first studied the role, meaning, and symbolism of the hand. The human hand has excellent sensation and can read the rugged Braille book through the fingertips. The fingerprint on the palm increases the friction force allowing it to catch an object without slipping. It is also possible to communicate with others by hand gestures. Sign language using hands is also a means of communication for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Furthermore, I studied the symbol of hand in Oriental painting and Western painting. 'Hand Symbol [Suin]' is a Buddhist method of expressing the virtues of Bodhisattva in Buddhism with various shapes using hands and fingers. As such, Suin is very meaningful in Buddhist iconography by defining the nature and contents of Buddhist stature or Buddhist painting and expressing faith and the meaning of worship.

There are several masterpieces that show the pride of the artist and the world of their works taking the hand as the subject of the painting. In the portraits of Michelangelo and Durer, hands are highlighted as much as faces. They wanted to show their pride and self-esteem through their hands, as they are artists using hands.

We can find many hands in contemporary paintings, too. The hand of Georgia O'Keeffe, taken by Alfred Stieglitz, looks beautiful just like a new sculpture. The prayer's hands of Mother Teresa, taken by Mary Ellen Mark, show that the symbol of hands in Christianity has strong power. In modern paintings, there are a lot of new works that have not accepted before by accepting the human body positively.

I started painting my works by capturing the hands with paints in my daily life and I tried to express my emotions with the hands in my recent works. They can be either hands longing for freedom or hands to reach for something to achieve it. They can be also hands craving love.

Up to the contemporary society, the theme of hand in paintings has

different symbolism in East and West.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allows thinking of the meaning of hands in my works and making a positive ground for future works by reviewing the feelings and meanings of the hands in my works as well as the feelings and symbols of the hands in the oriental paintings and the Western paintings.

【Keywords】 Hand, Emotion, Symbol, Meaning, Role